

전주시 U-20월드컵 개막전 홍보 강화

추진단·운영팀, 포항 스틸야드 구장 관중에 개최 소식 알려... 창원축구센터 시설 등 살펴봐

전주시가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주월드컵경기장 개막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월드컵운영팀 직원 10여명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가 열린 포항 스틸야드 구장 등을 방문,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전주의 개막전 개최 소식을 알렸다.

또한 방문단은 전북 현대 서포터즈단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방문단은 국내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인 포항스틸야드 경기장과 국내의 많은 팀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전광판과 잔디그라운드 등 주요 시설

을 둘러보고, 최적의 시설 구축을 통해 내년 대회를 차질 없이 치러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에 앞서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대회 추진 전담 부서인 U-20월드컵추진단을 공식 출범,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기획지원, 홍보 시설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월드컵 추진단은 경기장 시설 보수와 함께 대회 붐 조성 및 준비상황 점검 및 행사 지원 등 U-20월드컵 대회 준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시가 U-20월드컵 추진단 사무실을 시청이 아닌 월드컵경기장에 마련한 것은 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추진을 위해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북현대보

터스 축구단 등과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두 기관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2017 FIFA U-20월드컵 개최를 확정지은 지난해 9월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해왔다. 또, 지난 2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U-20월드컵 추진단을 신설하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시는 개막전 개최 등 세계인의 시선이 전주에 집중되는 이번 대회를 전년 전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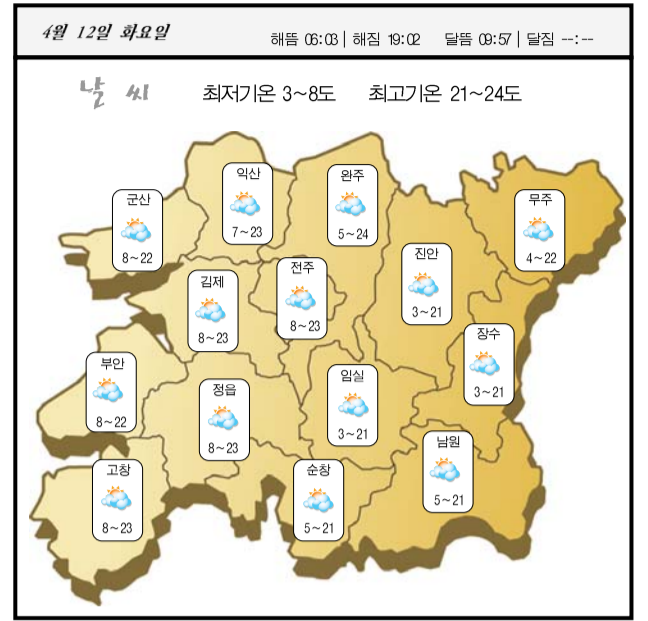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고부가

가치 문화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해당 구장 시설들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경기장 시설 정비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막전을 유치한 만큼 더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FIFA U-20 월드컵'은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 2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전주에서는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을 포함해 총 9경기가 열리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국 대표팀 경기도 성적에 따라 최소 2경기에서 많게는 4경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표절 논문으로 승진 땀 당연 무효”

김승환 교육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표절논문으로 승진 적발 시 범법 시효 없이 당연 무효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논문 등에 그대로 옮겨 신고 이를 통해 승진 가산점을 얻는 행위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표절 논문이나 보고서를 승진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면서 “표절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타 시도에서는 일선 학교 교장·교감들이 표절한 연구 보고서로 승진 가점을 받은 것이 드러나 7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김 교육감은 “교원들이 표절 논문으로 승진가산점을 받아 승진하게 될 경우 승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며 “논문 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기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지원증서 전달식 송하진 도지사는 11일(월) 도청 4층 접견실에서 '2016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9개 마을기업에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최근 10년간 외교 선호도 절반 ↓ 자사고 2배 ↑ 국제고 1/3 가량 낮아져 이과 선호 현상 두드러져

최근 10년간 외국어고 선호도가 절반 이상 떨어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형사립고 선호도는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이업체가 상반기 고교 설명회 예약자 6만8840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고교별 선호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외교 선호도는 19.1%로 2006년(40.3%)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외고가 고교별 선호도 상위 10개 학교에 유일하게 랭크됐다.

또 국제고 선호도도 10년 전(19.7%)과 비교해 3분의 1 가량 축소된 5.6%로 파악됐다.

반면 자사고 선호도는 50.2%로 10년 전(24.8%)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아졌다. 자사고는 고교별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교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휩쓸었다. 1위는 외대부고, 2위는 하나고, 3위는 상산고가 차지했다.

과학고의 경우 2006년 8.2%에서 13.2%로, 영재학교는 2006년 6.9%에서 11.9%로 선호도가 상승했다. 고교별 선호도 상위 10개 학교에 진압한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5위), 경기과학고(6위), 한성과학고(7위), 경기북과학고(8위), 한국과학영재학교(10위) 등 총 5개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고교별 선호도

변화에 대해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이과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와 편성이 상대적으로 억제돼 있는 외교, 국제고의 인기는 하락하고 이과 성향이 높은 과학, 영재학교, 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교의 경우 수능과 직결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 비중이 자사고, 일반고에 비해 낮은 데다 제2외국어 수업에 치중해 학습부담이 큰 학교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선호도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자사고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5개 교과나 전 과목

을 반영하는 학교가 많아 특정과목(영어)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학입시, 수능 결과 등에서 자사고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외교, 국제고 선호도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외교, 국제고는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선호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올해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수능 문이과 통합안, 대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선호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용주 기자

“비리·잡음 로스쿨 폐지하라”

사시준치 교사생모임 기자회견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로스쿨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교사생모임은 11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로스쿨 입시 전수 조사와 법무부가 2022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경북대학교 로스쿨 입학 면접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아버지를 문 수험생에게 면접관이 아버지 이름을 물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고,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을 졸업한 딸 취업청탁,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에 다니는 아들 졸업청탁 등 로스쿨을 도입한 이후 7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직무를 게을리해왔다”면서 “로스쿨생들에게 1인당 700만원(약)이나 들여 호화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로스쿨 예산을 5배나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도 넘은 로스쿨 감싸기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에 이미 지원된 예산만 해도 수백억에 달한다”며 “그 예산이 로스쿨 교수의 비합리적으로 높은 연봉으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이는지 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